

잔류농약 걱정! 이제 그만 하시죠?

언론매체 통해 정확한 정보전달 소비자 교육기회 삼아야

시중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은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지난 10년 동안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보면 유통농산물중 기준초과되는 것은 1.5% 정도이고, 이중 대부분은 법 상으로 허용이 안된 농산물에 농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부적합된 것이다.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상 농약은 농작물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 등 병·해충 및 잡초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사람이 아플 때



임무혁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사용하는 의약품과 같이 농약은 식물이 건강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약'이다.

잔류농약이란? 농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우선 표면에 묻어 잔류하거나 작물체에 서서히 침투된다. 표면에 존재하는 농약은 비, 바람 등에 의한 제거, 공기 중으로의 휘산, 수분과 일광에 의한 분해 등에 의해 감소 또는 제거되며, 식물체에 침투한 농약은 식물이

지닌 각종 효소에 의해서 대사·소실될 뿐만 아니라 일부 남아있는 잔류농약도 식물의 성장과 동시에 희석되어 없어진다.

농약과 잔류농약의 차이는? '농약'은 농작물에 사용하기 전 농약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이다.

'잔류농약'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농약'을 수백 배 희석해 농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한 후 수확한 농산물에 잔류되는 극미량의 농약을 말한다. 보통 소비자들은 잔류농약과 농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농산물에 잔류되는 극미량의 농약성분을 '농약'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흔히 우리가 농약의 독성을 얘기할 때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

독성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농약제조사가 농약을 제조하거나 농업인이 농약 살포시 유의해야 할 급성독성에 대한 분류이다.

따라서 식품에 잔류된 독성이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또는 저독성 중 어느 분류에 속하는 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잘못된 표현이다.

농산물중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식품 섭취를 통한 잔류농약의 독성은 사람이 일평생 먹어도 문제가 없는 만성독성을 평가한다. 즉, 식품에 잔류된 농약의 양을 매일 먹어도 건강상 아무런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을 법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식품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농작물 재배시 농약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중 역할을 하기도 한다.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원칙은 농작물 재배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수확한 농산물에 농약 잔류량이 국제농약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하루섭취허용량 보다 낮은 양이 섭취되도록 식품별로 잔류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잔류허용기준치라는 것은 그 수준의 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을 식품별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위해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

은 병·해충 방제를 위해 국가에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의미이다.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입 및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출하전 및 유통농산물에 대하여 맡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잔류농약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흔히 주변에서 농업인들은 판매하는 농산물에만 농약을 사용하고, 직접 먹을 것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이러한 말이 거의 정통한 정보인 것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잔류농약의 홍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농약 살포과정에서 많은 양의 농약이 섭취될 수 있어 사용시 방제복을 꼭 착용해야 하며, 농약 포장지 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즉, 농약 살포시 농업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많은 양의 농약이 직접 흡입 또는 흡수 될 수 있어 중독되는 사례도 가끔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농작물에 사용된 농약이 병·해충 방제라는 목적을 달성하면

잔류농약 걱정! 이제 그만 하시죠?

대부분 분해, 소실되거나 극미량만 잔류된다는 사실과, 농약 살포중 직접 접촉되는 농약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잘못된 사실이 진실처럼 떠돌고 있다고 생각된다.

잔류농약에 대한 올바른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9년 12월 매스 미디어에 배포한 “과일! 껍질채 드세요 잔류농약 걱정없이” 보도자료는 수십년 동안 관행되어온 과일 꺾는 습관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나타냈다. 이 자료는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작년 겨울 퇴근 후 동료들과 소주한잔 하고 귀가했는데 식탁에 사과 한개가 놓여 있었다. 사과 한개를 바지에 한번 문지른 후 반쪽으로 나누어 아내에게 먹으라고 건네 주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사과 물로 씻었냐”고 해서, “그냥 먹어도 된다”며 다시 권유하고 “왜 과일을 그냥 먹지 씻냐”고 반문했다. 아내의 대답은 “농약 걱정 때문에 꺾어서 먹거나 씻어서 먹어야 한다”고 했다. 필자는 항상 과일은 씻지 않고 그냥 먹는다.

명색이 식품의 잔류농약 전문가로서 “시중에 유통중인 농산물은 잔류농약이 거의 없거나 미량만 잔류하므로 세척하지 않고 먹어도 안심할 수 있다”고 TV에 출현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농약검사 결과를 보면 유통 농산물은 잔류농약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난 10년 동안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보면 시중 유통농산물중 기준초과되는 것은 1.5% 정도이고, 이중 대부분은 법 상으로 허용이 안된 농산물에 농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부적합된 것이다. 예를들면 사과에 A라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의미는 A농약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거쳐서 사과에 A농약 사용이 허용되었다는 뜻이다.

즉 B농약이 사과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B농약은 사과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통 농산물중 농약 기준 부적합이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단지 사용 허가가 안된 농약이 농산물에 극미량 잔류되었기 때문이다.

언론 및 소비자에게 신선한 충격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당연히 과일은 꺾지 않고 그냥 먹고 있고,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과일을 꺾고 있으면 그냥 먹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집에 있는 아내조차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잔류농약 홍보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 다음날부터 꼬박 2주

“과일! 껍질채 드세요 잔류농약 걱정없이” 보도자료는 과일 껍질 채는 습관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나타냈다. 한 직원의 어머니는 60년 이상 과일중의 농약걱정 때문에 항상 껍질 채어 드셨다는데, TV방송 이후 부터는 과일은 그냥 드신다 한다.



동안 관련자료를 찾고 열심히 고민한 결과, 언론매체 통해 소비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각종 학술지에서 발표한 과일 껍질 채의 효능·효과, 잔류농약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농약 걱정 때문에 과일을 껍질 채어서 드세요?” 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유통되는 농산물에 엄청난 양의 농약이 잔류된다고 믿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론 및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자료가 발표된 이후 주위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 직원의 어머니는 60년 이상 과일중의 농약걱정 때문에 항상 껍질 채어 드셨다는데, TV에서 이 내용을 보신후 부터 과일은 그냥 드신다고 했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약 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모 과장님은 우리나라 농약의 최고 전문가로서 농산물에 잔류농약 걱

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인데도 사모님은 평소 사과 껍질을 껍질 채어 드셨다고 한다. 어느날 갑자기 사모님이 과일을 껍질 채 드셔서, “왜 사과껍질을 껍질 채냐”고 했더니, “TV에서 껍질 채 그냥 먹어도 된다 해 껍질 채 않는다”고 하셨단다. 매스 미디어의 힘이 대단한 것을 현실적으로 체감한 예가 되었다.

이와 같은 예로 소비자들에게는 잔류농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인 매체를 이용해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_소식/디지털홍보관)에 잔류농약 홍보동영상 ‘농약 이제 안심하세요’ 일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의 잔류농약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Y